

부사관의 특성과 직무

부사관 최고 계급인 원사조차도 원칙적으로 장교의 최하위인 소위보다 아래 서열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 부사관 계급 체계가 장교 계급 체계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교가 부사관보다 무조건 우월하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부사관은 부대 내부 관리와 장교의 명령에 따른 병사들의 통솔 등 고급 교육보단 병사들과의 관계와 실무적인 경험이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장교는 전문적인 전략전술이나 다른 고급 교육이 필요한 기술을 담당하는 식으로 서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

고로 장교는 이론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며 지휘자, 최종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고 부사관은 뛰어난 실무 경험과 현장 능력을 통해 부지휘자,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사들을 통제해 작전과 전술을 이행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일반 부대에서는 중간 관리자, 조연자, 혹은 부지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특수전 세계의 경우에는 이들이 주요이자 핵심이고 전부이다. 전세계의 각종 첩보부대나 특수부대는 대부분이 부사관 위주의 체계인데, 계급보다는 주로 '특수요원' 혹은 '대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들은 국가에 따라서 파일럿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최고급 인력 대우를 받으며 모든 임무 편성과 현장 작전 지휘 등에서 장교 이상의 절대적인 영향력(애초에 특수부대는 사병 출신의 장교들이 상당히 많다.)을 발휘한다. 당장 대한민국 특전사만 해도 주력 핵심은 부사관이다. 특히 특수전의 끝판왕인 미합중국 특수작전사령부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는 5년차 중사 정도만 돼도 같은 나이의 소위보다 짬밥을 못해도 4년은 더 먹는 데다가, 자기 보직에선 장교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부사관의 특성상 장교와 달리 한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 부대 사정에도 흰하다. 상사쯤 되면 이미 20년 가까이 온갖 산전수전을 거치며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경험한 군생활의 달인이고, 심지어 그보다도 위인 원사는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도 꽤 많아서 사단장과 비슷한 경력이라고 하는 경우도 흔한 만큼 절대로 만만히 볼 수 없다. 심지어는 비슷한 시기에 군생활 시작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소위와 하사가 각각 사단장과 사단 주임원사로 같은 사단 사령부에서 만나는 경우도 존재했었다고 한다.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바뀌면 사단주임원사 혹은 연대주임원사와 가장 먼저 인사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고 한다.

그렇기에 법적(군인사법, 군형법) 서열은 장교가 더 높더라도, 대개의 경우 웬만한 수준에서는 자신의 '부하'인 부사관이 실질적으로는 나이 및 경력이 비슷하거나 훨씬 더 높기에 보통은 서로 상호존대 및 존중하면서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장교가 부사관을 하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애시당초 해당 장교가 나이 및 짬에서 부사관보다 한참 우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한 케이스. 보통 중위급 이하의 하급 장교들은 상사급 이상의 상급 부사관들에겐 예의를 차리고, 나이 많은 부사관들은 나이 적은 장교들에게 경례를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 이런 관례를 모르고서 계급상 부사관이 자기보다 아래라고 원사와 상사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부하처럼

부러먹으려고 드는 **무개념** 소위는 아주 작살이 난다. 심지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장기 지원에 실패, **중위** 달고 전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문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영관급은 달아야 하사 또는 짬 안되는 중사에게 하대를 할 수 있는 수준. 대대장 정도 되면 주임원사, 급양관 빼면 나이 어린 행보관한테도 하대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육군의 경우 부대마다 다르지만 위관급 장교도 초급 부서관 한정으로 **짬과 나이** 2가지가 다 앞서면 상사 이상의 부서관들의 묵인 하에 일방적으로 말을 놓을 수 있는 **암묵의 룰**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대도 중사에게 말을 놓으려면 대위는 되어야 한다. 소위, 중위가 중사를 짬에서 앞서는 경우는 재입대자이거나 개편처서 진급 누락을 당하지 않고서야 사실상 없다. 또 임기제부서관이 많은 곳은 병사였던 소대원이 하사 달았는데 갑자기 그 인원에게 소대장이 갑자기 존대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임기제부서관보다 후임인 하사에게 존대하는 것도 부서관 서열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아서 소대장 중위가 어쩔 수 없이 그 밑의 하사들에게 줄줄이 하대하거나 다같이 존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이건 케바케이며 이런 일방적 하대는 장교의 권력이 큰 육군에서도조차 점차 사라지는 추세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어찌 되었던 위관급 장교라면 짬이 높지 않은 이상 모든 계급의 부서관에게 경어를 써주는 게 기본이다.

가끔 동년배의 장교와 부서관이 친구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고교 동창이 한 명은 장교가, 다른 한 명은 부서관이 되어 같은 시기에 군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겠지만, 자신들끼리나 혹은 주위에 병들밖에 없을 경우 소/중위급 장교와 하사급 부서관이 서로 말을 까놓고 대화하는 장면은 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육군에서는 부서관끼리는 계급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타부대 사람이면 서로 존댓말을 써준다고 한다. 장교와의 차이점이자 **병**과 비슷한 부분이다. 해군, 공군은 규모가 작고 함정/기지간 통신이 너무 잘 되는 관계로 어느정도 짬밥을 먹으면 같은 직별(해군)/특기(공군) 사람들은 어느정도 알게 된다. 친해지면 말 놓는 건 당연한 수순. 아예 처음보는 사람한테는 '몇 기이십니까?'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예의이다.

대한민국 육군 부서관의 경우는 3 가지 신분으로 분류되는데 그 대우가 완전히 다르다. 일반 부서관이 특전사로 전입하려면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전 부서관의 경우는 특전사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어야만 일반 부서관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는 병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민간인 출신 초임하사의 경우 상·병장급 고참병보다 짬도, 실무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장교는 아무리 초임이라고 해도 대개 병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다가 어느 과정이든 혹독한 장교 양성 과정을 거친 자원이이기 때문에 병들로부터 알보이는 정도가 비교적 덜하지만 초임 부서관의 경우 나이와 학력조차 병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장교보다 더욱 알보이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머릿수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상이 아닌 현실이다. 저출산이 당장 해결될 일은 요원하니 충분히 당분간은 자리가 남아돌 가능성이 크다.

하사 이상 부사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40 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 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 2020 년부터 3 박 4 일.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 세, 전사의 경우 45 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 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육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병대와 1962 년까지 계급 호칭이 달랐다. 육군의 경우엔 부사관 체계가 복잡한 미군의 영향을 받아 복잡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일본군 해군의 계급명인 병조를 이어받았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건군~1957 (육군/공군)	이등중사-일등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특무상사
건군~1957 (해군/해병대)	삼등병조	이등병조	일등병조	병조장
1957~1989	하사	중사	상사	
1989~1993	하사	중사	이등상사	일등상사
1993~	하사	중사	상사	<u>원사</u>

2010 년대 들어서 상사와 원사 사이에 영사를 추가하려는 계획, 원사 위에 선임원사를 추가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무산되었다.